



가정교회 예배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오이코스 전도 대상자

“...기도 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 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골로새서 4장 3절]

NO	대상자명	관 계	구체적 전도방법	영적수준	비 고
1					
2					
3					
4					

수준1) 결신할 수 있음 수준2) 복음에 대하여 열려 있음 수준3) 전도자에 대하여 열려 있음
수준4) 기독교에 대하여 알지만 부정적임 수준5) 기독교에 대하여 전혀 모름

가정교회를 위한 기도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19절]

NO	성 명	기도제목
1		
2		
3		
4		
5		
6		

교회를 위한 기도

- 한 기흥 목사님 사역과 건강, 가정을 위하여
- 선교사님들의 GMI 사역과 건강, 가정을 위하여
- 교회와 사역/행사를 위하여
 - 4차 일천번제 특별 새벽기도회(1/22/2024~10/17/2026)
 - 한여름 성경집회(8/7~10, 강사: 문강원 목사)
 - 예순모임(8/14)
 - 신생아 축복기도(8/17, 3부 예배 시)
 - GTD 209 남자기(8/24~27)
 - 2025 성경통독 및 퀴즈대회(8/30 단체 및 개인전 필기 시험, 8/31 개인전)



가정교회 예배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가정교회 예배안 2025. 8. 10

8월 둘째 주: 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가? (시편 84:1-12)

■ Welcome

여름에 기력 회복을 위해 즐겨 먹는 음식이 있으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또한 지난 주의 Grace Time을 통해 은혜 받은 것 중에 하나를 나누어 봅시다.

■ 본문: 시편 84:1-12

1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2 내 영혼이 여호와와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3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4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셀라) 5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6 저희는 눈을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7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8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셀라) 9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피 보옵소서 10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11 여호와 하나님은 해오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12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 서론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며 사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땅을 바라보는 자는 땅의 것으로, 하늘을 바라보는 자는 하늘의 것으로 살게 된다. 하늘을 보는 인생이야말로 거룩하고 복된 인생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갈 때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사는가”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 삶의 결과가 달라진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과 땅에만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의 삶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마음을 빼앗겨 살지만 성도는 성전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삶이다.

성전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 주님을 만나는 장소이다. 늘 주의 전을 사모하며 사는 것이 복이다. 세상 사람과 성도가 다른 점이 크게 있다면 주일이면 성도는 교회를 찾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찾지 않는다.



가정교회 예배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시편 기자는 시간적으로 말하면 세상에서 천 날을 사는 것 보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루를 사는 것이 좋고, 장소로 말하면, 악인의 집에서 평안히 사는 것보다 문간이라도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것이 더 좋다(10절)라고 말하며 결국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4절)라고 고백하고 있다. 그러므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행복을 다른 곳에서 찾지 않고 성전에서 찾는다.

■ 관찰 질문: 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가?

해답 1. 성도는 교회에서 힘을 얻기 때문이다(5, 7절)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이며,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마음이 넓어진 상태이다. 마치 넓고 평탄한 고속도로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막힘이 없고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다. 기도와 찬양, 말씀이 끊기지 않고 흐르는 상태에 있는 자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마음이 편견, 미움, 욕심, 상처, 정죄감 등으로 굽어 있고 좁아져 있다. 이런 상태에서는 기도가 막히고 찬양과 말씀에도 기쁨이 없다. 삶에 의욕이 없고, 열매도 없다. 가슴이 답답하고 메인 듯한 느낌이 든다. 이럴 때는 자신을 살펴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먼저 헐어야 한다.

교회는 그 회복을 돕는 자리이다. 주일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기도, 부흥회, 제자훈련, 공동체의 교제를 통해,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다 보면, 식었던 마음도 다시 뜨거워진다. 하나님과 성전을 향하는 불붙는 사모함이 생긴다. 또한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기쁨, 힘, 위로, 사랑, 소망, 능력, 응답, 축복을 받는다.

(이사야 40:31)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 하리로다”**

❁ 적용 질문 1

- 1)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 2)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나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 묵상의 삶이 어떠한지 함께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답 2. 성도는 교회에서 문제의 해답을 얻기 때문이다(8절).

우리는 인생의 험한 길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안고 살아간다. 때로는 원수에게 둘러싸이고, 억울함과 낙심 가운데 놓일 때도 있다. 그러나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중에 꼬여 있던 문제들의 해답을 얻게 된다.

(이사야 55:1-2) **“너희 목마른 자들이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2 너희가 여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쁠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가정교회 예배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교회는 기도의 자리요, 말씀의 자리이다. 과거 예루살렘의 성전은 더 이상 없고, 이제 교회가 성전이다. 교회는 목마르고 괴로운 심령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이다. 성전을 사랑하는 심령들이 성전에 나와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된다.

5~6절에서 성전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눈물의 골짜기’를 ‘샘물이 터져 나오는 곳’으로 바꾸어 주신다고 한다. 샘물은 팔레스틴 지역에서 축복의 상징이며, 이는 곧 눈물이 변하여 생명과 회복의 은혜로 바뀐다는 뜻이다.

또한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겠다”**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영역에 복의 비를 내려 크고 작은 일마다 아름다운 열매로 채우시겠다는 약속이다. 이는 결국, 눈물이 기쁨으로, 시련이 축복으로 바뀌는 역전의 은혜를 의미한다.

❁ 적용 질문 2

- 1) 내가 만난 문제와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해 교회된 여러 지체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답 3. 성도는 교회에서 가치있는 삶을 발견하기 때문이다(10절).

문지기는 초라한 자리이다. 문을 두드리면 달려가 열어야 하고, 정중히 인사해야 한다. 밤에도 온전히 쉬지 못하고, 조금만 늦어도 불평을 들어야 한다. 그럼에도 묵묵히 감당해야 하는 자리이다.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이런 일을 자처한다면, 사람들은 미쳤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집에서 문지기로 있는 하루가 세상에서 천 날을 사는 것보다 더 낫다고 고백한다. 악인의 장막에서 높임을 받는 것보다 도리어 하나님 집의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삶을 더 귀하게 여긴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가치관이 변화하였기 때문에 **“무엇이 정말 가치있는 삶인가?”**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고린도후서 5: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새 피조물이 되고보니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인 것을 알게 되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알고 보니 모든 것이 배설물이라고 하였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에서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집에 가지않고 문지기처럼 성전에 계속 있고 싶어한다.

* 아난티 그룹 이중명 회장 간증

❁ 적용 질문 3

- 1) 나의 삶에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 또 누구에게 두고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세요.
- 2) 가치의 관점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바뀌어진 부분이 있다면 나누시기 바랍니다.
- 3) 주의 전을 사모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소망하며 서로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